

법무부, 2024년 제1회 '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' 개최

- 피해자국선변호사·진술조력인 및 스토킹 처벌 제도의 개선방향 등 논의 -

□ 법무부는 2024. 3. 27.(수) 15: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'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*'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2005년 10월 발족, 여성·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

□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, '피해자 국선변호사·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', '온라인스토킹 관련 「스토킹처벌법」 제·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'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.

○ 피해자 국선변호사·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

-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, 성폭력·아동학대·인신매매·장애인 범죄 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*도 증가했습니다.

* 피해자 국선변호사 : (2013년) 8,064건 → (2023년) 37,150건

진술조력인 : (2014년) 386건 → (2023년) 4,231건

-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,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온라인스토킹 관련 「스토킹처벌법」 제·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
 -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·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「스토킹처벌법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 -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,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.

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“법무부는 앞으로도 ‘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행정’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,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·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고 말하였습니다.

□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☑

담당 부서	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	책임자	과 장	정가진 (02-2110-3647)
		담당자	사무관	이우람 (02-2110-3852)
	검찰국 형사법제과	책임자	과 장	한상형 (02-2110-3307)
		담당자	검 사	남소정 (02-2110-330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